

# KWDI 이슈페이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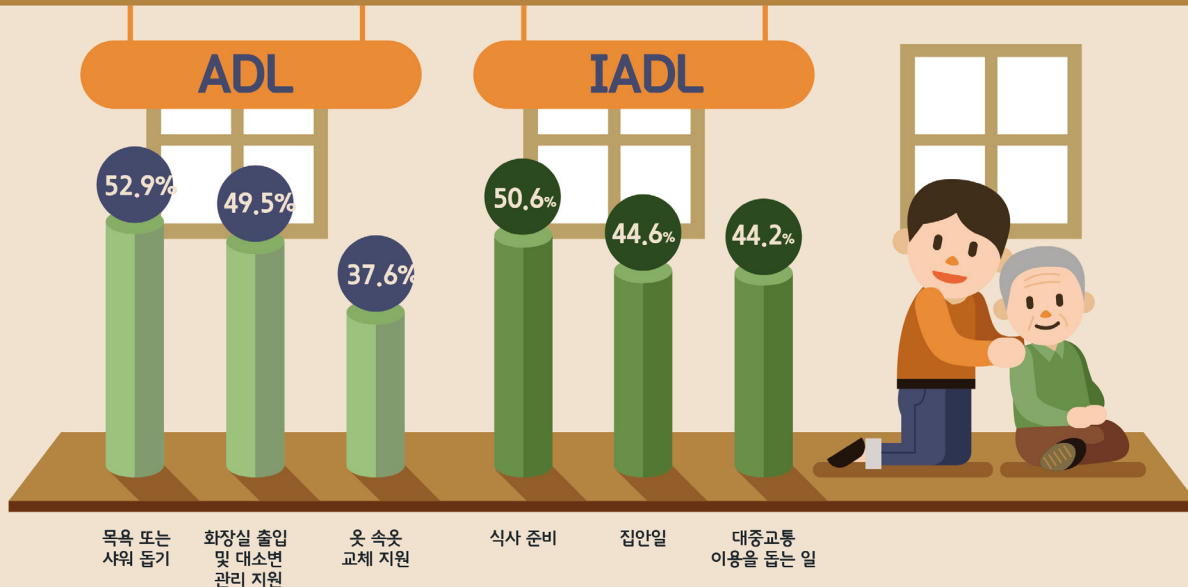
수행과제명 남성의 관점에서 본 노인 돌봄 경험과 역할전환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최인희 연구위원 (Tel: 02-3156-7105 / e-mail: inhchoi@kwidmail.re.kr)

## 남성 가족돌봄자의 노인돌봄 경험과 정책적 지원 방안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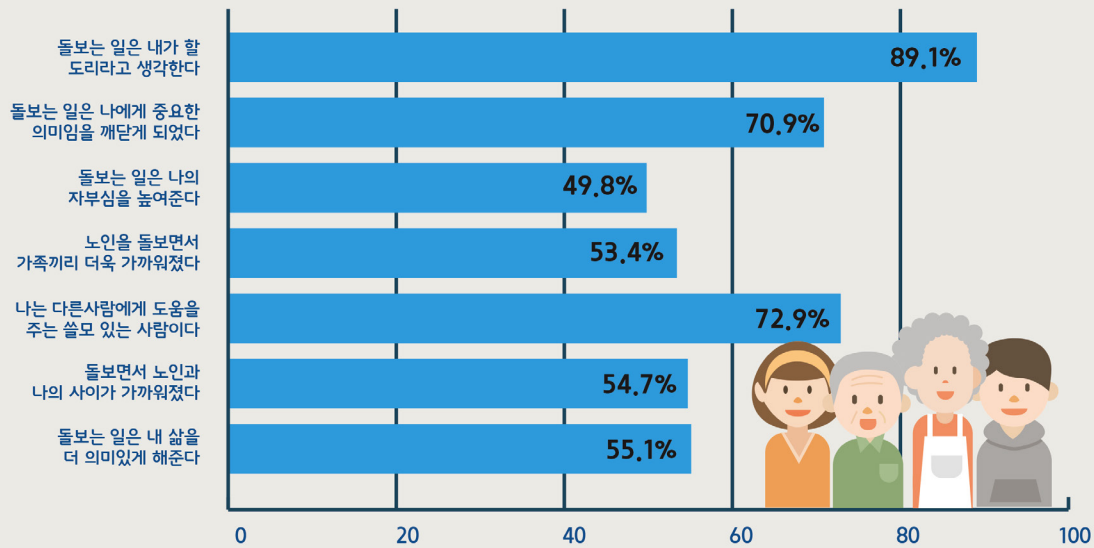
“ 본 연구는 남성(남편, 아들)에 의한 노인돌봄 경험과 이들의 역할전환 과정,  
남성돌봄자의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음.  
이와 함께,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 
남성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. ”

### 남성가족돌봄

노인의 ADL과 IADL 지원 시 영역별 부담 정도 : 부담됨 + 매우부담됨



## 돌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긍정적 측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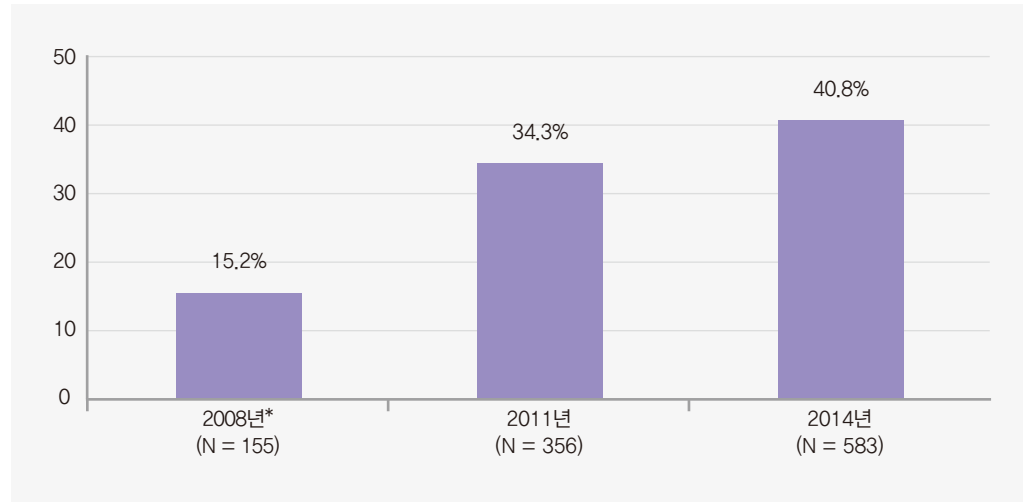
## 초록

- 최근 한국사회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대표적인 변화는 ‘남성’ 가족돌봄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. 하지만 ‘돌봄의 주체’로서의 남성 및 남성의 돌봄자로의 역할전환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.
-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(N=247)와 심층면접 조사(N=17)를 시행하여 남성(남편, 아들)에 의한 노인돌봄 경험과 이들의 역할전환 과정을 살펴보고, 남성돌봄자의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였음. 이와 함께,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정책현황을 검토하여 남성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.

## 1. 배경 및 문제점

- 최근 한국사회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대표적인 변화는 ‘남성(남편, 아들 등)’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.

(단위: %)



[그림 1] 요보호노인의 주돌봄자 중 남성 비율

\*2008년은 배우자 돌봄 비율임

자료: 박명화 외(2009: 901), 정경희 외(2012: 342, 2014: 359), 「2008년도, 2011년도,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」

- ▶ 국외에서는 증가하는 남성돌봄자의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돌봄 수행방식 및 주돌봄자가 인지하는 노인돌봄 부담에 있어서의 성별차이(Akpınar et al., 2011; Montgomery, 1992; Pinquart & Sorensen, 2006; Stoller, 1992), 남성의 노인돌봄 경험(히라야마 료, 2015; Pretorius et al., 2009; Ribeiro et al., 2007; Sanders & Power, 2009) 및 남성성이 노인돌봄 경험에 미치는 영향(Baker et al., 2010; Russell, 2007)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.
- ▶ 국내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남성돌봄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된 바 있으나 (이순미 · 김혜경, 2009; 최희경, 2012a) 남성들의 돌봄경험을 면밀히 탐색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.
- ☑ 본 연구는 남성들의 노인돌봄 경험을 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, 돌봄을 둘러싼 가족관계 및 젠더정체성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선제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조사 및 분석결과

### 1. 설문조사 개요

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전국(제주도 제외)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만 55세 이상 노인<sup>1)</sup>을 조사시점에서 3개월 이상, 주당 15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남성(남편, 아들 등)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음. 돌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요보호노인의 일상생활 수행(ADL) 및 도구적 일상생활(IADL) 수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.

▶ 조사는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29일(총 31일)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1: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총 24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음.

▶ 주요 조사항목은 돌봄대상자 특성, 돌봄현황, 사회적 지지, 남성돌봄자의 생활세계, 가치관 및 삶에 대한 만족도, 정책지원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음.

1)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자로 정의되나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기도 함(국가법령정보센터, 2016).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인을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나 조사결과 요보호노인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례가 81.5% 었음.

### 2. 주요 분석결과

#### 1) 요보호노인의 특성 및 남성돌봄자의 돌봄 현황

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돌봄자와 요보호자의 관계는 ‘아들’(65.2%), ‘배우자’(29.1%)가 가장 많았음.

남성돌봄자가 돌보고 있는 요보호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기간은 평균 51.07개월이었으며, 요보호노인은 평균 3.18개의 일상생활수행능력(ADL)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▶ 요보호노인이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평균 만성질환 수는 4.15개로 조사되었으며, 전체 응답자의 44.9%는 현재 돌보고 있는 요보호노인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.

남성돌봄자가 현재 요보호노인을 돌보는 주된 이유(1순위)는 ‘내가 아니면 돌볼 수 없어서’(38.9%)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‘내가 돌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’(23.9%), ‘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’(15.4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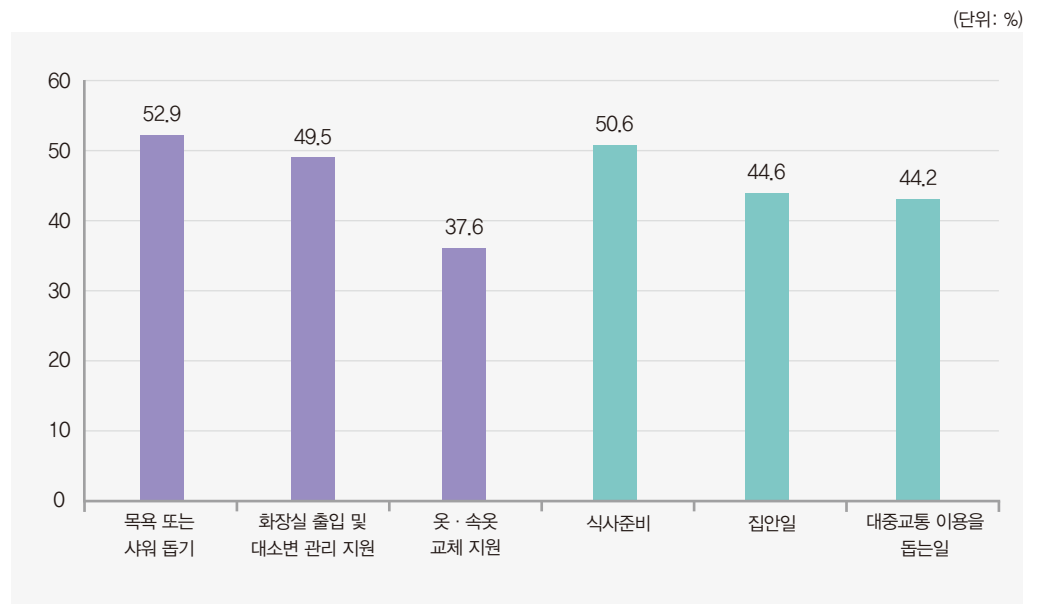
남성돌봄자가 요보호노인을 돌본 기간은 평균 47.87개월이었으며,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‘20시간 이상~30시간 미만’이라는 응답(46.6%)이 가장 많았음.

▶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이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돌보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, 남성돌봄자가 일주일에 요보호노인을 돌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은 ‘15시간 이상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(32.4%), ‘5시간 미만’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16.6%로 나타남.

♥ 남성돌봄자가 최근 3개월 간 지원한 요보호노인의 일상생활수행(ADL) 영역은 평균 2.77개로 나타났으며, 요보호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영역은 ‘목욕 또는 샤워 돕기’(52.9%), ‘화장실 출입 및 대소변 관리 지원’(49.5%), ‘옷 · 속옷 교체 지원’(37.6%) 등으로 조사됨.

▶ 도구적 일상생활수행(IADL)의 경우, 남성돌봄자는 평균 4.80개 영역에서 요보호노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이 중 ‘식사준비’(50.6%), ‘집안일’(44.6%), ‘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일’(44.2%)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2] ADL과 IADL 종류별 부담이 되는 정도: ‘부담됨’+‘매우 부담됨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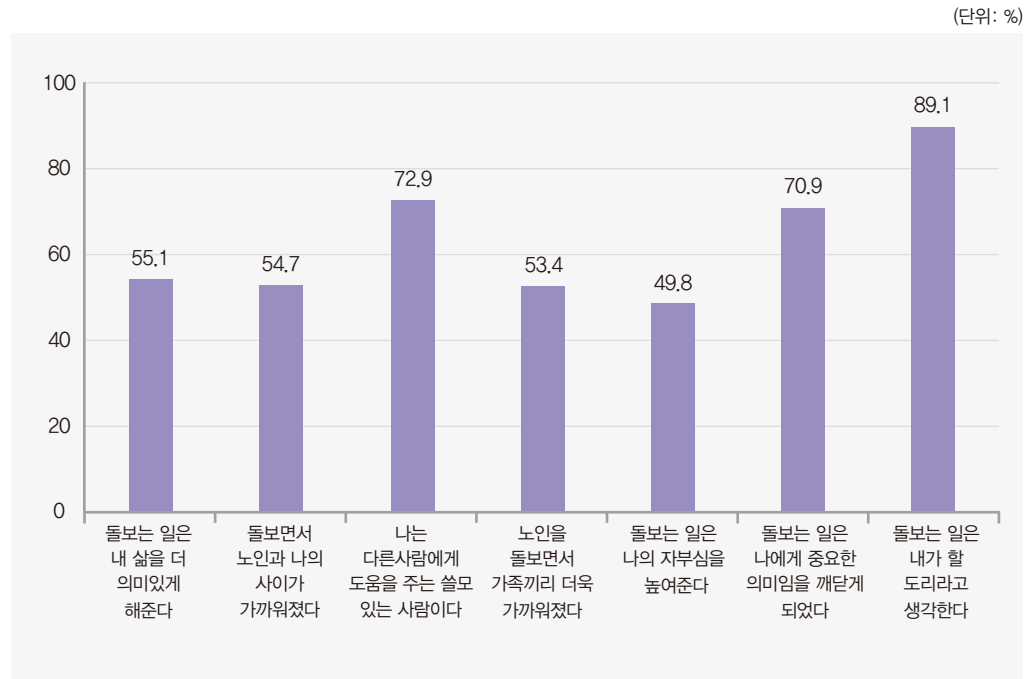
## 2) 남성돌봄자의 돌봄 경험

♥ 남성돌봄자가 요보호노인을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양부담은 ‘(요보호노인에게)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느낀다’(44.9%)가 가장 빈번하게 조사되었으며, 그 다음으로 ‘내가 원하는 만큼 사생활을 갖지 못한다’(36.8%), ‘돌보는 일과 다른 일들을 함께 하는데 스트레스를 느낀다’(35.6%), ‘함께 보내는 시간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’(35.6%)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.

▶ 부양부담은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돌봄자가 (조)부모를 돌보는 남성돌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응답자가 70세 이상인 경우,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, 주당 40시간 이상 요보호노인을 돌보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.

♥ 한편, 전체 응답자의 70.9%는 ‘(요보호노인을) 돌보는 일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다’에 동의하였고, 55.1%는 ‘돌보는 일은 내 삶을 더 의미있게 해준다’, 54.7%는 ‘돌보면서 노인과 나의 사이가 가까워졌다’에 동의하는 등 상당수의 남성돌봄자들이 요보호노인을 돌보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3] 돌봄을 통해 경험하게 된 긍정적 측면



### 3) 남성돌봄자와 사회적 지지

💡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돌봄자의 64.4%는 현재 본인을 도와 정기적으로 요보호노인을 돌보는 부돌봄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상용근로자인 남성돌봄자,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남성돌봄자일수록 정기적인 부돌봄자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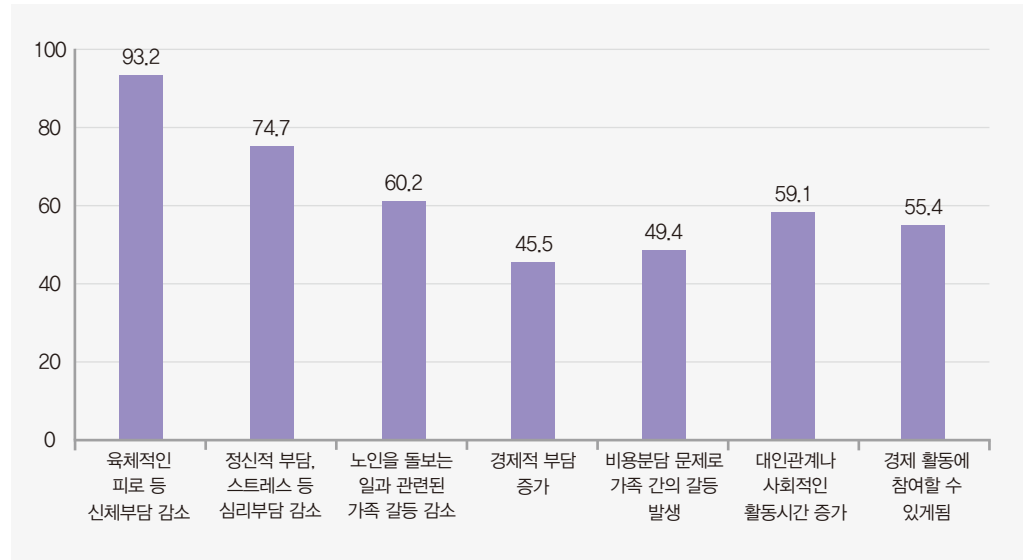
- ▶ 부돌봄자는 요양보호사라는 응답(28.9%)이 가장 많았으며, 정기적 부돌봄자의 1주 평균 돌봄 시간은 '10시간 미만'이 32.7%로 가장 많았음.
- ▶ 정기적인 부돌봄자가 없는 남성돌봄자(N=88) 중 20.5%는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일시적으로 요보호노인을 돌볼 수 없을 경우에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함.

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급여내용에 따라 34.4%(기타 재가급여)~89.9%(방문요양)로 조사되었음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지만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인지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

- ▶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돌봄자의 생활변화를 조사한 결과, 외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남성돌봄자의 93.2%가 육체적인 피로 등 신체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, 74.7%는 정신적 부담, 스트레스 등 심리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외부 서비스 이용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. 그러나, 외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남성돌봄자의 45.5%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, 49.4%는 비용분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응답함.

[그림 4] 외부서비스 이용 후 생활의 변화

(단위: %)



- ▶ 한편,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'아픈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'(35.2%), '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어서'(19.5%) 순으로 조사되었음.

#### 4) 남성돌봄자의 생활세계: 건강, 경제활동, 가족관계

- ④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돌봄자의 상당수는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, 전체 응답자의 11.3%는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.

- ▶ 남성돌봄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,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, 주당 돌봄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우울증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.

- ④ 경제활동의 경우, 전체 응답자의 74.5%가 조사 시점에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.

- ▶ 전체 응답자의 13.4%는 노인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65.6%는 노인을 돌보는 것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고 응답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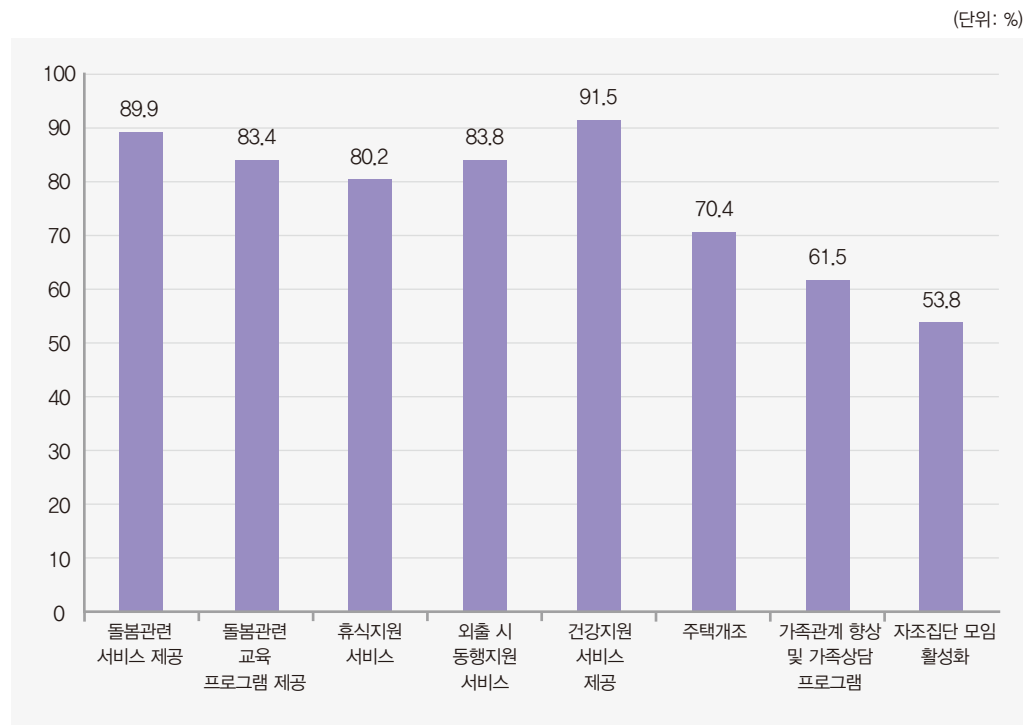
- ④ 남성 가족돌봄자가 요보호노인을 돌보면서 경험하게 된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- ▶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돌봄자의 경우 요보호노인과의 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2.9%로 가장 많았으며, 좋아졌다는 응답도 27.1%로 조사됨.
- ▶ (조)부모를 돌보는 남성돌봄자의 경우, 부모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7.0%로 가장 많았고, 좋아졌다는 응답도 28.6%로 나타남. 한편, 노인을 돌본 이후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25.0%로 나타남.

##### 5) 남성돌봄자의 정책지원 욕구

-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돌봄자의 대부분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지원(91.1%), 시설서비스 확충(85.4%), 재가 서비스 확대(85.0%)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.
-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욕구를 살펴본 결과, 남성돌봄자들은 건강지원서비스 제공(91.5%),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(89.9%), 외출 시 동행지원 서비스(83.8%),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(83.4%) 등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함.

[그림 5]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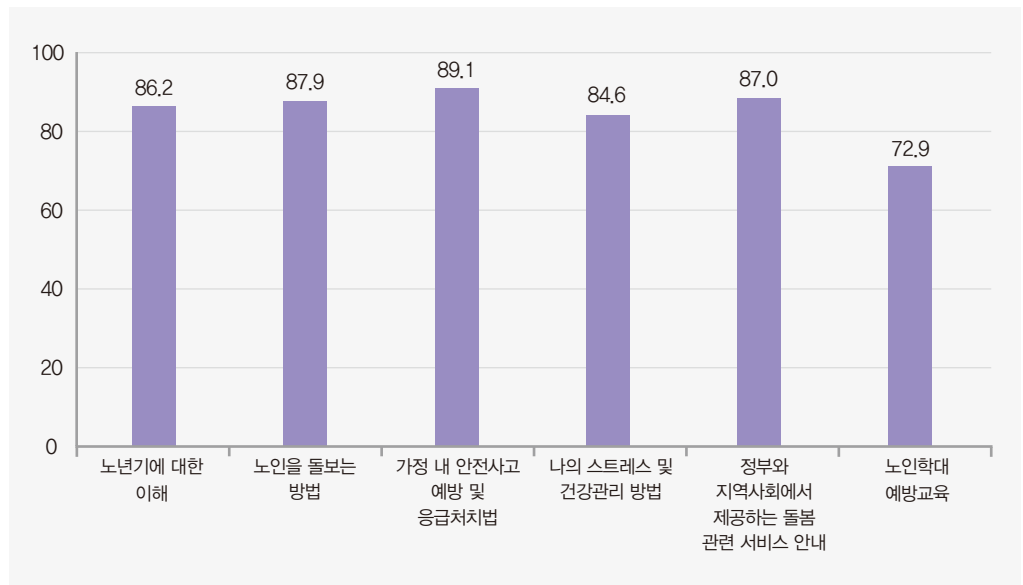


-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돌봄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으나 향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의향(53.8%)은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.
  -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'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법'이 필요하다는 응답(89.1%)이 많았고, '노인을 돌보는 법'(87.9%), '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안내'(87.0%) 등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조사됨.



[그림 6] 노인 돌봄을 위한 영역별 교육의 필요성

(단위: %)



### 3. 정책제언

#### 제안 1) 가족돌봄자 지원 위한 법적 근거 확보

- 현행 법제에는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족돌봄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함.
  -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(1안)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개정하는 방안(2안)을 고려해볼 수 있음.
 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할 경우 가족돌봄자의 범위와 개념이 기능상태가 매우 제한적인 노인을 돌보는 가족으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돌봄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.

#### 제안 2) 가족돌봄자의 일·돌봄 양립 지원 확대

- 노인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제한적임으로 가족돌봄자가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.
  -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이용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 특히,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무급으로 제공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유급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.
  - 요보호노인의 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돌봄활동이 종결된 가족돌봄자들을 대상으로 기 시행 중인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#### 제안 3)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

- 가족돌봄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  -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(예: 서비스 소개, 이용방법 안내 등), 돌봄자를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, 노인의 질환에 대한 이해 및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, 스트레스 관리법, 외출 시 동행 지원 서비스 등은 가족돌봄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.

- ▶ (남성 특화 프로그램) 남성돌봄자의 경우, 돌봄 단계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. 돌봄 초기인 남성돌봄자에게는 돌봄자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긍정적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및 가사일 등 남성돌봄자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경험과 감정을 동료집단과 나눌 수 있도록 남성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구성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음. 특히,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제공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(예: 운영시간 등)하여 남성돌봄자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.

#### 제안 4)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접근성 강화 및 급여 확대

💡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, 본인부담금 경감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해 가족 돌봄자들의 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- ▶ 배우자 돌봄자가 (조)부모 돌봄자에 비해 주요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할 것임.
- ▶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있지만,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당수의 남성돌봄자는 제도 이용 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음. 따라서, 본인부담금을 축소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.
- ▶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가족돌봄자의 일·돌봄 양립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야간 또는 주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,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성격이상이 (예: 치매노인과 기능상태 저하 노인이 함께 이용)하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.

#### 제안 5)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

💡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가족돌봄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(aging-in-place)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.

- ▶ 일본의 사례처럼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영국의 가족돌봄자 지원단체인 Carers UK나 Carers Network 형태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.
- ▶ 또한,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및 외출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시휴식지원 서비스(respite care)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.

## 4. 기대효과

💡 ‘남성’ 가족돌봄자의 노인돌봄 현황 및 경험에 대한 기초자료 생성

💡 시행중인 노인돌봄 지원 정책(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)의 개선방안 및 신규 사업 개발의 시사점 도출

## 참고자료

이순미 · 김혜경(2009).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: 부부 가구 노인의 생애서사 분석을 중심으로. *가족과 문화*, 21(4), 63-94.

최희경(2012).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. *노인복지연구*, 55, 7-32.

히라야마 료(2015).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. 류순미 · 송경원 옮김, *어른의 시간*.

Akpınar, B., Kükgüçlü, O., & Yener, G. (2011). Effects of gender on burden among caregivers of Alzheimer's patients. *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*, 43(3), 248-254.

Montgomery, R.J. (1992). Gender differences in patterns of child-parent caregiving relationships. In J.W. Dwyer & R.T. Coward, (Eds.), *Gender, families, and elder care* (pp.65-83). Newbury Park, CA: Sage.

Pinquart, M., & Sörensen, S. (2006).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er stressors, social resources and health: An updated

meta-analysis. *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: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*, 61(1), P33-P45.

Pretorius, C., Walker, S., & Heyns, P.M. (2009). Sense of coherence amongst male caregivers in dementia: A South African perspective. *Dementia*, 8(1), 79-94.

Ribeiro, O., Paul, C., & Nogueira, C. (2007). Real men, real husbands: Caregiving and masculinities in later life. *Journal of Aging Studies*, 21(4), 302-313.

Sanders, S., & Power, J. (2009). Roles, responsibilities, and relationships among older husbands caring for wives with progressive dementia and other chronic conditions. *Health & Social Work*, 34(1), 41-51.

Stoller, E. P. (1992).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of caregiving spouses. In J.W. Dwyer & R.T. Coward (Eds.), *Gender, families, and elder care* (pp.49-64), Newbury Park, CA: Sage.

주관부처: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

관계부처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